김영록 지사 "건설경기 활성화·종사자 권익보호에 최선"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 체육대회 참석

건설기계산업 종사자에 표창장…건설산업 발전·협력 다짐

전남도는 지난 1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건설기계 산업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회장 임순규)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종사자들과 가족, 내빈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등도 참여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발전은 곧 건사협의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계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건사협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지킴이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 연륙연도교' 등 SOC 분야 9746억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설립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는 현재 24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법정 전문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작업준수사항·재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1일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 '(사)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사나무열매' 공동 저자 초청 북 콘서트 개최

김용빈·하세은씨 주인공, '작가와의 대화' 진행

'감사나무열매'의 공동 저자 김용빈·하세은 작가 초청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복가족협동조합은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소재 행복가족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민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감사나무열매' 출판기념 김용빈·하세은 작가 초청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작가는 회사 에덴스랩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로, 2013년 '용빈'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매한 이후 가수로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세은 작가와 함께 목포 극동방송 '모두의 찬양' 코너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한 공동 저자 하 작가와 함께 출간한 '감사나무열매'를 직접 소개하며 창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냈다.

'감사나무열매'는 그림과 글을 통해 감사의 의미와 위로를 전하는 작품으로, 독자가 스스로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표지에 나뭇가지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나만의 감사나무를 키우며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독자들의 질의응답, 창작 배경 소개 등이 이어지며 문학과 예술을 통한 교감의 시간이 펼쳐졌다.

또한 공연 형식이 더해져 무대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김용빈 작가의 노래와 기타 연주는 따뜻한 울림을 전했고, 행사 후반부에는 독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인회와 포토타임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감사나무열매' 공동 저자 김용빈·하세은 작가.

행복가족협동조합 관계자는 "청년기업가이자 예술가인 김용빈 작가와 하세은 작가를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의 문화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복가족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2년간 지역민을 위한 가족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영암 지역사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유치 '온힘'

사회단체협의회 "농업·산업 공존…정책 운영 최적지"

영암 지역사회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12일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군청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협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가 영암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영암은 농촌이면서도 대규모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농업,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돼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는 최적의 실험 환경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군청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영암의 지리적 특성, 정책 수행을 위한 준비된 행정력과 협력 체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출산국립공원 등의 청정 관광자원과 다양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소득이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될 경우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산림연구원, 가을 숲속 음악 선율 감동

'숲나들이' 공연…나주시립국악단·프랑스팀 참여

힐링 공간인 숲을 배경으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숲치유 힐링음악회가 개최됐다.

12일 전남산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나주시 메타세쿼이아길 숲치유광장에서 '숲나들이'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나주시립국악단과 프랑스 공연팀 '삼인동락(Three Friends in Harmony)'이 함께 무대에 올라 국악과 세계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해금 독주와 양금시나위, 기악 2중주·3중주 등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은 "해외 아티스트와 함께한 이번 음악회가 숲을 매개로 한 국제 문화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과 치유의 선율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30만명이 찾는 전남산림연구원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해설, 유아숲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도민 휴식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길과 향나무길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포토존이다.

전남산림연구원은 12일 나주시 메타세쿼이아길 숲치유광장에서 '숲나들이' 숲치유 힐링음악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구원은 족욕 라운지와 향기테라피 공간을 갖춘 '테라피가든'을 새롭게 조성해 방문객들이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재누리센터 건립과 특화정원 조성 등 명품공원화를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 '한가위 달빛산책' 성료

국립광주과학관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특별천문행사 '한가위 달빛산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밤하늘의 보름달과 토성을 관측하며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별빛천문대의 구경 1.2m 대형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망원경을 통해 직접 달과 토성을 관찰했다.

특히, 음력 15일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의 웅장한 모습과 분화구(크레이터)를 세밀하게 관측했다. 행사 당일 토성이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평소보다 크고 밝게 빛난 가운데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로 보름달과 토성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전화 062-370-7030 | 팩스 062-385-5400 | 이메일 gndn2018@naver.com

운세 (음력 8월22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쥐
48년생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말라
60년생 배신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2년생 이익이 증대되어 희색이 만면한다
84년생 일거리가 생기고 돈이 많을 것
96년생 주머니가 배로 늘어난다

소
49년생 시비를 멀리하고 충돌을 피하라
61년생 돈 관계는 해결 될 것
73년생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진다
85년생 말로 뜻을 이루기 어렵다
97년생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호랑이
50년생 찾는 것은 가까운데 있다
62년생 거래가 효과적인 날
74년생 모임에 참석은 피하는게 좋다
86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98년생 미래를 위해 일에 열중하라

토끼
51년생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한다
63년생 청탁으로 곤경에 처한다
75년생 변화가 있지만 유리하게 될 것
87년생 충고나 도움말을 받아들이라
99년생 사랑 고백하면 뜻 이룰 때

용
52년생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64년생 협력자 생기고 기쁜 소식 들려온다
76년생 일로 인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88년생 고초를 당하나 유리하게 해결된다

뱀
53년생 뜻하지 않던 금전이 생긴다
6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나 간다
77년생 중차대한 사건이 생길 것
89년생 애정운은 좋다

말
5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언행이 필요
66년생 행운은 귀하에게 있다
78년생 어른 말을 잘 들어라
90년생 미팅이 잘돼 좋은 소식이 있다

양
55년생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리가 없다
67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다
79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
91년생 적극적으로 해야 낭패를 피한다

원숭이
56년생 일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68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80년생 귀하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92년생 공부는 해야하는데 뜬 구름만 생각

닭
57년생 일은 순조로우며 수입이 생긴다
69년생 문서로 즐거워하는 날
81년생 배우자 어디에 있을까 고민
93년생 오해가 생겨 관계 서먹해지기 쉽다

개
58년생 금전 문제는 당분간 어려워 진다
70년생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된다
94년생 뜬소문으로 심신이 고달프다

돼지
59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손실이 많다
71년생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면 밝다
83년생 기대했던 계획은 허사될 우려가 있다
95년생 선남선녀가 만나니 사랑이 시작한다

풍수·역리문화원 | 광주 동구 중장로 2가 1-1 | blog.naver.com/soed9999 | 010-3629-3566